

# 주간 통일정세

2017-19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5.7	김정은, 김일성대학 원로 연구사에 조화(연합뉴스)
		박봉주 北 내각 총리, 불가리아 총리에 축전(연합뉴스)
		김일국 北 체육상, 시리아 체육총동맹 대표단과 담화(연합뉴스)
		北 체육성, 시리아 체육총동맹과 체육 분야 교류 및 협조 합의서 조인(연합뉴스)
	5.8	北, '김정은 테러 시도' 주장 이어 주민 분노 부각...왜?(연합뉴스)
		北, '김정은 테러 시도설' 활용해 수뇌부 결사옹위 독려(연합뉴스)
		北, 제재동참국 싸잡아 비난...“제 눈 찌르는 행위”(연합뉴스)
	5.9	김영남, 佛 마크롱에 대통령 당선 축전(연합뉴스)
	5.10	北김정은, 상이군인 공장 찾아 격려...“나라의 보배”(연합뉴스)
	5.11	北김정은, 100세 할머니에 생일상(연합뉴스)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개최(연합뉴스)
		北김일성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6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연합뉴스)
		北, 한 달째 여명거리 자랑...“상상 이상 희한한 별천지”(연합뉴스)
		北, 평양주재 외교사절에 '한미, 김정은 테러 시도' 주장(연합뉴스)
北 “中 '일대일로'는 인도양 장악 통한 세계 진출 시도”(연합뉴스)		
경제	5.6	北, 스웨덴서 수입 볼보 승용차 1천대 값 40년 넘도록 안내(연합뉴스)
		“北, 3월 중국에서 석유수입 크게 늘려”(연합뉴스)
		“러 경기 침체로 북-러 교역 규모 4년 연속 감소”(연합뉴스)
		“러-北, 올 1~2월 교역 73% 증가...러 석탄 수출 크게 늘어”(연합뉴스)
	5.11	평양 주재 외교관 “북한 기름값 최근 85% 급등”(연합뉴스)
사회 문화	5.7	“北, 순안공항 주변 뉴타운 조성...외국인 관광객에 과시용”(연합뉴스)
		北, 내년 4월에도 평양 국제마라톤...참가자 모집 시작(연합뉴스)
		北, 2017년 봄철 장애인 및 애호가 탁구경기 개최(연합뉴스)
	5.8	‘반미’ 독려하는 北 “올해 11만여명 신천박물관 참관” 보도(연합뉴스)
		美국적자 2명 억류에도 평양과기대 10월 국제학술대회 강행(연합뉴스)

외교 국방	5.9	北 신의주 새 초등·중등학교 준공(연합뉴스) 北 제17차 5.21 건축축전 개막(연합뉴스)
	5.10	北 “가뭄 심해…피해방지에 역량 총동원”(연합뉴스)
	5.11	北, 올해 첫 모내기…‘가뭄 피해 예방’ 독려(연합뉴스)
	5.12	“함경도·강원도 등 北 곳곳 산불…美 위성 포착”(연합뉴스)
	5.6	北 “트럼프가 5월 전쟁설 불어대도 곧이들을 사람 없어”(연합뉴스)
	5.7	北, 평양과기대 관련 활동 미국인 또 적대행위 혐의 억류(연합뉴스)
	5.8	北통신, 中 비난논평 영문판에도 “붉은선 넘었다” 내용 추가(연합뉴스)
	5.9	北매체 “트럼프 정부 정신차려야…시간은 우리 편”(연합뉴스) 中, 일대일로 포럼에 북한 초청…“개방된 행사다” 강조(연합뉴스) 北 “日, 어리석은 선택…전쟁 나면 핵소나기 들쉴 것”(연합뉴스) 北, 러시아 전승절 맞아 ‘북-러 협력관계’ 띄우기(연합뉴스)
	5.10	북미, 오슬로서 이틀째 비밀 접촉…철통보안 속 ‘탐색전’ 마쳐(연합뉴스) “美하원서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 확대’ 초당적 법안 발의”(연합뉴스) 말레이 “아시안컵 예선 평양서 치르겠지만…北, 안전 보장해야”(연합뉴스)
	5.11	北, 주한미군 ‘휴민트 부대’ 창설계획 비난…“일격에 소탕”(연합뉴스) 北 “美의 대북 ‘테러’, 전대미문 참패로 기록될 것”(연합뉴스) 核비보유 12개국 “北, 핵보유국 지위 못 가져…도발 멈춰야”(연합뉴스)
	5.12	美정보기관 수장 “北 정보수집 어려워…정보자원 지속 투입”(연합뉴스) “CIA 코리아임무센터 신설, 북핵 최고의제 취급 의미”(연합뉴스) NPT 62개국 “북한 핵·미사일 포기하라” 촉구 성명(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5.10	상이군인 근무 공장 시찰	박봉주, 리주오, 안정수, 조용원	-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7. 5. 7.

##### ■ 김정은, 김일성대학 원로 연구사에 조화(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인민과학자·후보원사·교수·박사인 김일성종합대학 최동륜 연구사의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5일 조화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2017. 5. 10.

##### ■ 北김정은, 상이군인 공장 찾아 격려...“나라의 보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상이군인들이 근무하는 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김정은은 공장 간부들의 손을 잡고 “군사복무의 나날에 발휘한 애국심을 안고 오늘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투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영예군인들을 고무·격려해주려고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김정은은 “나라의 보배인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며 “모든 당조직에서는 영예군인들이 사소한 애로와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피주는 것을 의무와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고 발언함.

2017. 5. 11.

##### ■ 北김정은, 100세 할머니에 생일상(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00번째 생일을 맞은 황해북도 중화군 거주 허룡제 할머니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5. 7.

##### ■ 박봉주 北 내각 총리, 불가리아 총리에 축전(연합뉴스)

- 박봉주 내각 총리가 6일 불가리아 총리로 선출된 보이코 보리소프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일국 北 체육상, 시리아 체육총동맹 대표단과 담화(연합뉴스)**

- 김일국 체육상이 7일 무아파크 타우피크 주마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리아 체육총동맹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2017. 5. 9.

■ **김영남, 佛 마크롱에 대통령 당선 축전(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마누엘 마크롱에게 지난 8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다. 공식행사

2017. 5. 11.

■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개최(연합뉴스)**

-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창립 60돌을 맞아 기념보고회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전용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11일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김일성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6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연합뉴스)**

- 김일성 주석의 함경북도의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60주년을 맞아 기념보고회가 김덕훈 내각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7. 5. 7.

■ **北 체육성, 시리아 체육총동맹과 체육 분야 교류 및 협조 합의서 조인(연합뉴스)**

- 북한 체육성과 시리아 체육총동맹이 7일 평양에서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5. 7.

### ■ 北, '김정은 테러 시도' 주장 이어 주민 분노 부각...왜?(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7일 1면에 게재한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에 접한 천만 군민의 분노의 목소리'란 제목의 글에서 북한군 장성, 보위성 장교, 당 간부, 광부 등을 내세워 한국과 미국을 비난함.
- 조선중앙방송과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도 이날 함흥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등을 내세워 "미제와 남조선 괴뢰 패당과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북한은 전날인 6일에도 조선중앙TV와 중앙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잇따라 보도함.

2017. 5. 8.

### ■ 北, '김정은 테러 시도설' 활용해 수뇌부 결사옹위 독려(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태양을 가리워(가려)보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살아 숨 쉴 곳은 이 행성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대학 강좌장, 군 인민병원장, 과학원 초급당위원장, 태권도 선수, 예술단 연출가, 탄광 지배인 등을 내세워 "일꾼들과 당원들, 각 계층 근로자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의 최고 존엄은 천만 군민의 생명이고 삶의 전부"라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려는 온 나라 천만 군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고 주장함.
- 아울러 신문은 이날 3면 '천만의 웨침(외침) - 결사옹위!'라는 제목의 정론에서도 "정녕 우리의 분노는 핵보다 강하다"며 "수령을 보위하지 못하면 사회주의도 혁명도 조국도 없다"고 주장함.

### ■ 北, 제재동참국 싸잡아 비난...“제 눈 찌르는 행위”(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8일 '국제적 정의는 강력한 힘에 의해 담보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제 판에는 정의와 공정성, 내정 불간섭을 표방하는 일부 나라들까지 미국의 강압에 눌리워 바른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이어 “(이 나라들이) 자기의 잇속에 따라 좌왕우왕하면서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현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횡포한 지배와 간섭 책동에 의하여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는 엄중한 사태들이 빚어졌다”고 주장함.

####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추대 1주년…北 “미제와 결전 참여”(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 1주년을 맞이한 9일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9천 자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기사에서 “온 겨레와 세계의 커다란 관심 속에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때로부터 1년이 되었다”며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따라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 지난 1년은 당 7차 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노선의 정당성,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자강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생불패라는 불변의 철리를 다시금 확증했다”고 주장함.

2017. 5. 11.

#### ■ 北, 한 달째 여명거리 자랑…“상상 이상 희한한 별천지”(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자 2면에 ‘여명거리는 만리마속도 창조의 고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명거리는 아침과 저녁, 분초가 다르게 변모되는 주체 조선의 눈부신 대비약 속도가 뚜렷이 과시된 곳”이라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현대 건축 거리의 본보기”라고 보도함.
- 여명거리 아파트에 무상으로 입주했다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최춘식 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수백만 달러(수십억원)가 들 이런 집을 우리 같은 평범한 교원은 가질 생각조차 못 할 것”이라고 발언함.
-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이날 여명거리 건설에 쓰인 각종 첨단 기술을 소개함.

#### ■ 北, 평양주재 외교사절에 ‘한미, 김정은 테러 시도’ 주장(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한성렬 외무성 부상은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외교 사절들을 위한 ‘정세통보모임’을 열어 미 중앙정보국(CIA)과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김정은을 노린 특대형 테러음모 행위를 극비리로 추진했다고 주장함.
- 한성렬은 “우리 식의 반 테로(테러) 타격전은 즉시에 다발적으로 강도 높게 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함.
- 앞서 북한 국가보위성은 지난 5일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최고 수뇌부’에 대한 생화학 테러 모의를 적발했다고 주장하며 ‘정의의 반(反) 테러 타격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바 있음.

#### ■ 北 “中 ‘일대일로’는 인도양 장악 통한 세계 진출 시도”(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개인 명의로 게재한 ‘대국들의 군비경쟁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시기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지대, 한길’ 전략”이라며 일대일로 구상을 언급함.
- 논평은 “이 (일대일로) 전략의 목적은 세계적 판도에서 육상 및 해상 수송망을 형성하자는 데 있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이 인도양 장악”이라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려는 중국과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인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또한 “외세의 간섭은 붙는 불에 키질하듯 중국과 인도 관계를 대결어로 몰아가는 다른 요인”이라며 미국 등이 인도를 대(對)중국 견제 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 北 “김정은 테러 모의 연루자 범죄인 인도 요구할 것”(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한미 정보기관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한 테러를 모의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연루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함.
- AP통신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한성렬 외무성 부상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외교 사절들을 위한 ‘정세통보모임’을 열어 미 중앙정보국(CIA)과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김 위원장을 노린 특대형 테러음모 행위를 극비리로 추진했다고 주장함.
- 한 부상은 이와 함께 “우리 법에 따라 중앙검찰소는 연루된 범죄자들의 인도를 요청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 끔찍한 국가지원 테러의 기획자들과 공모자들, 추종자들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고 AP는 보도함.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2017. 5. 11.

#### ■ 평양 주재 외교관 “북한 기름값 최근 85% 급등”(연합뉴스)

-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이 북한 내 기름값이 폭등했다고 전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유소가 1kg당 70센트(약 800원) 하던 기름값을 최근 1달러 30센트(약 1천480원)로 85% 이상 올렸다고 제보함.
- 이 외교관은 또 “일부 주유소에서는 기름 판매를 한 번에 10ℓ나 20ℓ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함.

#### ■ “북한, 평양 아파트 가격 6년새 67% 상승”(연합뉴스)

- 북한 시장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평양 아파트 평균 가격이 최근 6년새 67%나 올랐다고 중국 북경신보(北京晨報)가 11일 보도함.
- 신문은 평양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10년 1㎡당 3천 위안(약 48만9천900원)에서 2016년 말 1㎡당 5천 위안(약 81만6천500원)으로 6년 동안 2천 위안(약 32만6천600원) 올라 66.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함.
- 북경신보는 “북한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계획경제 바깥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대다수가 국가에서 배급해준 집에서 살지만 각종 형식의 개인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합법·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설명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5. 6.

■ **北, 스웨덴서 수입 불보 승용차 1천대 값 40년 넘도록 안내(연합뉴스)**

- 북한이 43년 전 스웨덴에서 불보 승용차 1천대를 수입한 뒤 그 비용을 여태껏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스웨덴 공영방송 SVT는 평양 현지에서 북한 외무성 관리와의 불보 자동차 수입대금 관련 인터뷰 내용을 지난 4일(현지시간) 방영함.
- 방송에서 기자가 스웨덴 기업들이 당시의 수출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묻자 외무성 관리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다”며 “우리 쌍방이 앞으로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호상으로 긴밀히 협력한다면 이 문제는 꼭 앞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으며, 북한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아졌다면서 북한이 스웨덴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길 원한다고 발언함.

■ **“北, 3월 중국에서 석유수입 크게 늘려”(연합뉴스)**

-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 3월 중국으로부터 석유수입을 크게 늘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RFA는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휘발유를 비롯해 경유, 등유 등의 수입을 늘렸다고 보도함.
-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북한의 휘발유 수입량은 1월보다 6배 뛰었고, 경유는 수입액이 1월 2만4천 달러에서 지난달 300만 달러(약 35억원)로 크게 늘었음.

■ **“러 경기 침체로 북-러 교역 규모 4년 연속 감소”(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 간 교역 규모가 4년 연속 감소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RFA는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의 ‘2016 러시아 북한 교역’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액수는 6천805만 달러(약 773억원)로, 전년도보다 13.1% 줄어든 수치라고 보도함.
-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액수는 2013년 1억342만 달러, 2014년 8천215만 달러, 2015년 7천834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했다

고 RFA는 보도함.

■ **“라·北, 올 1~2월 교역 73% 증가··러 석탄 수출 크게 늘어”(연합뉴스)**

- 올해 1~2월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자국 경제개발부 통계를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 기간 북-러 교역 규모는 1천950만 달러(약 221억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73% 늘었음.
- 러시아 세관은 양국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북한에 대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이 2.7배 정도 증가한 것 때문이라고 설명함.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5. 7.

■ **“北, 순안공항 주변 뉴타운 조성··외국인 관광객에 과시용”(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 인근 순안국제공항 주변의 7개 구역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순안국제) 공항과 활주로 주변에 건설된 새 살림집이 많이 보이는데, 대부분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초 사이에 지어졌다”면서 “새 살림집이 조성된 구역은 최소 7개이며 구역마다 20~30채 이상의 집이 들어섰고 여전히 건설 중인 아파트의 모습도 눈에 들어온다”고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순안국제공항 주변에 많은 살림집 건설 공사가 진행됐다”며 “평양을 찾는 외국인에게 현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분석함.

####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7. 5. 7.

## ■ 北, 내년 4월에도 평양 국제마라톤...참가자 모집 시작(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Koryo Tours)는 7일 "제 29차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가 2018년 4월 8일 열린다"고 영문 블로그를 통해 공지함.
- 이 여행사는 내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일정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관광상품 예약도 온라인을 통해 게시함.
- 여행사는 "10km나 하프 또는 풀코스를 달릴 수 있다"며 "3가지 코스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마련되며 대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브론즈'(bronze) 등급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함.

## ■ 北, 2017년 봄철 장애인 및 애호가 탁구경기 개최(연합뉴스)

- 2017년 봄철 장애인 및 애호가 탁구경기가 2일부터 7일까지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이번 경기에서는 김영록·김성철 선수가 1등을 차지함.

2017. 5. 8.

## ■ '반미' 독려하는 北 "올해 11만여명 신천박물관 참관" 보도(연합뉴스)

- 북한 최대의 반미교양 거점인 신천박물관을 참관한 주민이 올해에만 11만 명을 넘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내각 사무국과 체신성 등 1천100여 개 단체에서 11만 4천여 명에 달하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이 신천박물관을 찾았다"고 보도함.
- 방송은 신천박물관을 참관한 주민들이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하고야 말 멸적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고 보도함.

## ■ 美국적자 2명 억류에도 평양과기대 10월 국제학술대회 강행(연합뉴스)

- 8일 평양과기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사흘간 대학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대학 측은 "학술대회는 북한에서 열린다는 장소의 특수성, 세계 각국에서 초청되

- 는 뛰어난 게스트, 북한 최고의 과학자들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고 홍보함.
-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연초에 행사 개최 공고를 홈페이지에 냈다”면서 “현재 평양과기대 관계자 두 명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이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함.

## 2017. 5. 9.

### ■ 北 신의주 새 초등·중등학교 준공(연합뉴스)

- 평안북도 신의주에 9일 새 초등·중등학교가 준공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 北 제17차 5.21 건축축전 개막(연합뉴스)

- 제17차 5.21 건축축전이 ‘자강력으로 비약하는 주체건축’을 주제로 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2017. 5. 10.

### ■ 北 “가물 심해…피해방지에 역량 총동원”(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가물(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물 피해막이(피해방지) 전투는 단순히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라 당정책 옹위전”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가물 피해를 막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사업”이라며 “지금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이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가물 피해막이 전투를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일꾼(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독려함.
- 신문은 모든 기관과 기업소들이 운수수단들을 총가동해야 하며, 도·시·군에서 관개 구조물들을 시급히 보수·정비하는 등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함.

## 2017. 5. 11.

### ■ 北, 올해 첫 모내기…‘가물 피해 예방’ 독려(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1면 기사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으면서 “영광의

- 땅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올해의 첫 모내기가 시작되었다”며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하여 펼쳐나선 일꾼들과 농장원(농민)들은 모내기 첫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보도함.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10일 첫 모내기가 시작됐다”며 “농장원들은 김일성 동지께서 전쟁 시기 이곳 원화 땅을 찾으시어 농민들과 함께 씨앗을 뿌리신 농산 제1작업반 포진(땅빼기)에서 첫 모를 냈다”고 보도함.
  - 또한 노동신문은 11일 ‘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철저히 막자’라는 제목의 4면 기사에서 가뭄 극복에 성공한 여러 농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가뭄 피해를 예방하자고 독려함.

2017. 5. 12.

■ **“함경도·강원도 등 北 곳곳 산불··美 위성 포착”(연합뉴스)**

- 한국이 강원도 동부지역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가운데 북한도 최근 크고 작은 산불에 시달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미국 연방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인공위성이 지난달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보면 북한 곳곳에서 산불이 확인된다고 VOA는 보도함.
- 정용승 고려대기환경연구소 박사는 사진을 토대로 “특히 함경남도에 (피해가) 많고 강원도, 평안북도, 함경북도에서 산불이 났다”며 “구체적으로는 강계시, 선봉군, 세포군, 이천군, 금강산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함.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7. 5. 6.

■ **北 “트럼프가 5월 전쟁설 불어대도 곧이들을 사람 없어”(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은 우리 천만 군민의 불굴의 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지금은 5월이다. 4월은 다 지나갔다. 4월 전쟁설을 내들리던 미국의 허장성세는 패배로 끝났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5월 전쟁설을 열심히 불어댄다고 해도 그를 곧이들을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는 저들의 대조선(대북)정책이 얼마나 실속 없고 허황한 것인가를 온 세계 앞에 스스로 드러내놓았다”고 주장함.
- 신문은 “트럼프와 그 수하 부하들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공언하면서 수립하였다고 보도되는 대조선정책의 내용을 보면 별로 새로운 것은 없다”며 “굳이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상표가 다르고 지속성과 무모성이 다르다”고 평가함.

2017. 5. 7.

■ **北, 평양과기대 관련 활동 미국인 또 적대행위 혐의 억류(연합뉴스)**

- 북한은 7일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봉사하던 미국 국적자 김학송 씨를 ‘적대 행위’ 혐의로 억류했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화국(북한) 해당 기관에서는 평양과학기술대학 운영 관계자로 사업하던 미국 공민 김학송을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혐의로 공화국 법에 따라 6일 억류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현재 해당 기관에서 김학송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함.

2017. 5. 9.

■ **北매체 “트럼프 정부 정신차려야…시간은 우리 편”(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개인 명의로 ‘이성을 잃은 자들의 부질없는 객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싣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주장함.
- 논평은 트럼프 행정부에 “우선 우리에게 대한 인식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며 “우리가 핵 억제력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함.
- 논평은 북한과 외교관계 중단·격하를 요구하고 ‘제3국 제재’ 불사를 밝힌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발언 등을 ‘부질없는 객기’로 치부하며 “경제 및 외교적 봉쇄로 우리가 스스로 물러앉아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라고 주장함.

2017. 5. 10.

■ **북미, 오슬로서 이틀째 비밀 접촉…철통보안 속 ‘탐색전’ 마쳐(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은 9일(현지시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외곽에서 이틀째 북한 당국자와 미국의 민간 전문가 간 접촉 채널인 ‘트랙 1.5 대화’를 이어감.
- 북한과 미국은 당초 예정대로 이날 만남을 끝으로 이번 접촉을 마친 것으로 전해짐.
- 이번 대화에 북한 측에서는 ‘미국통(通)’인 최설희 외무성 미국국장, 미국 측에선 핵 협상 전문가인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잔 디매지오 국장이 각각 대표로 나서서 대화를 진행함.

■ **“美하원서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 확대’ 초당적 법안 발의”(연합뉴스)**

- 미국 의회 하원에서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증진법’(H.R.2397)을 대표 발의함.
-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된 미 북한인권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국무부가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RFA는 설명함.

2017. 5. 11.

■ **北, 주한미군 ‘휴민트 부대’ 창설계획 비난…“일격에 소탕”(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1일 논평에서 “인적정보 대대 창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 목적 밑에 우리의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정탐·파괴·암해(몰래 해를 끼치는 행위)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걷어집으로써 때가 되면 저들의 흉악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비난함.
- 매체는 “미국의 정찰위성들이 우리 공화국을 주야로 감시하고 정찰기와 무인기들도 수시로 정탐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그와 함께 미국은 관광이나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내부에 간첩들을 들이밀고 있다”고 주장함.
- 매체는 미국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지난 시기 수치와 망신으로 일관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추태”라고 주장함.

■ **北 “美의 대북 ‘테러’, 전대미문 참패로 기록될 것”(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1일 발표한 A4용지 11매 분량의 비망록을 통해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국가테러행위가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서 감행되고 있다”고 주장함.
- 비망록은 이어 “미국과 괴뢰들을 비롯한 사악한 무리들의 국가테러 광기는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찬탈하려는 특대형 도발 행위”라며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비망록은 “미국이 대조선 테러 일변도로 계속 나간다면 그로 하여 언제든지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상황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며 “백악관 정책들이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다면 대조선 국가테러 망동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고 잃을 것은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따져보고 이제라도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017. 5. 12.

■ **美정보기관 수장 “北 정보수집 어려워…정보자원 지속 투입”(연합뉴스)**

-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지휘하는 국가정보국(DNI) 덴 코츠 국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상당한 정보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코츠 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에 실존적 위협을 가할 잠재성이 있다”고 평가함.
- 코츠 국장은 “정보 당국은 이 핵심과제에 대해 지속해서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함.

■ **“CIA 코리아임무센터 신설, 북핵 최고 의제 취급 의미”(연합뉴스)**

-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코리아 임무 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신설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의제(Top Agenda)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CIA가 특정 개별 국가에 집중한 임무 센터를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조직은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방송은 보도함.
- 최근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성명을 통해 “코리아 임무 센터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는 노력을

더욱 단호하게 통합하고 지휘할 수 있게 한다”고 발언함.

## 나. 북·중 관계

2017. 5. 7.

### ■ 北통신, 中 비난논평 영문판에도 “붉은선 넘었다” 내용 추가(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큰 파문을 불러온 대(對)중국 비난 논평의 민감한 내용을 영문판과 중문판에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철’이라는 개인 명의로 지난 3일 발표된 이 논평은 중국을 이례적으로 직접 거론하며 비난해 북·중 관영언론 간 설전의 도화선이 됐으나, 중앙통신이 조선어(한국어)판과 함께 올린 영문·중문판 번역본에는 ‘북·중 관계의 붉은 선을 넘은 것은 중국’이라는 등 원문의 일부 격한 표현이 빠져 의도적으로 비난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음.
- 그러나 새로 게재된 영문판 전문에는 조선어판 원문의 전체 내용이 번역되면서 당초 누락됐던 민감한 대목도 모두 되살아난 것으로 확인됨.

2017. 5. 9.

### ■ 中, 일대일로 포럼에 북한 초청…“개방된 행사다” 강조(연합뉴스)

-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북한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개방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함.
- 경샹(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대일로 포럼에 북한을 초청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며 일대일로 포럼에서 유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답변함.
- 경샹 대변인은 북한을 왜 초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일대일로가 ‘개방형 창의’라는 의미가 있어 뜻이 같은 나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함.

## 다. 북·일 관계

2017. 5. 9.

### ■ 北 “日, 어리석은 선택…전쟁 나면 핵소나기 들썩을 것”(연합뉴스)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9일 ‘조선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려는 미국에 추종하는 일본 반동들의 속심을 폭로’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일본이 미국의

- 편에 서서 한반도 위기를 부채질한다고 주장함.
- 논평은 “일본이 공화국(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려는 미국에 아양을 떨면서 위기 수준을 좀 더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저들이 노리는 범죄적 야망 실현에 이롭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지금이야말로 평화헌법의 모자를 벗어 던지고 전쟁 국가로의 돌파구를 열어젖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그것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고 단순한 셈법”이라며 “제2의 조선 전쟁은 일본에 황금소나기가 아니라 핵 소나기를 들썩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라. 북·러 관계

2017. 5. 9.

### ■ 北, 러시아 전승절 맞아 ‘북·러 협력관계’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로씨야(러시아) 인민의 승리의 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의 전승절을 “세계인구의 80%가 휘말려든 사상 유례없는 세계대전의 기본 중하를 쏘련(소련)이 걸머지고 피로써 쟁취한 역사적 승리”라며 “쏘련 군대와 인민이 벌린 조국전쟁은 부정의를 반대하는 정의의 전쟁인 동시에 평화로운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격전이기도 하였다”고 보도함.
- 신문은 “조선(북한)과 로씨야는 가까운 름방(이웃나라)이며 두 나라 인민들은 오랜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조국전쟁승리 72돌을 맞는 로씨야 인민에게 축하와 친선적 인사를 보내며 로씨야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조로(북러) 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보장에 유익하다”며 “조로 친선·협조 관계는 두 나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함.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5. 10.

### ■ 말레이 “아시안컵 예선 평양서 치르겠지만··北, 안전 보장해야”(연합뉴스)

- 10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이리 자말루딘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예선전 장소를 평양으로 정한 만큼 우리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함.

- 그는 “말레이 대표팀이 북한에 안전하게 도착해 경기를 하고 안전하게 말레이시아로 귀국하길 원하며, 북한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만 그는 “이는 (김정남 암살과 말레이 국민 억류 이후 생긴) 양국간 갈등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주변국과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2017. 5. 11.

■ **핵비보유 12개국 “北, 핵보유국 지위 못 가져…도발 멈춰야”(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칠레, 독일, 일본 등 핵무기를 갖지 않은 12개국 모임인 ‘핵 비확산·군축 이니셔티브’는 최근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2020년) 준비회의에 지난 1일 북핵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
-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으며, 영변 5MW 원자로의 재가동과 우라늄 농축시설 확장·가동도 강력하게 규탄함.
- 이들 국가는 “NPT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더는 어떤 불안정 행위나 도발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함.

2017. 5. 12.

■ **NPT 62개국 “북한 핵·미사일 포기하라” 촉구 성명(연합뉴스)**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62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면서 이를 영원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준비회의에서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 성명을 62개국이 채택함.
-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음.

바.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5.8		'한반도 상황 대처' 아태 미군전력 증강에 9조원 투입(연합뉴스)
	5.9		트럼프정부 "한국 새 대통령과 건설적이고 깊은 협력 지속 고대"(연합뉴스)
	5.10		美당국자 "文 당선, 한미동맹 변동성 더하지만 큰 변화 없을 것"(연합뉴스)
	5.11	한미 정상, 조기 정상회담 추진...트럼프 "文대통령 공식초청"(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5.9		중국 외교부, 한국 새 정부에 "사드 입장 변함 없다"(연합뉴스)
	5.10		中외교부 "韓 새정부와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한관계 기대"(연합뉴스)
	5.11	文대통령, 시주석과 첫 통화..."사드·북핵 특사단 中 파견"(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5.6		日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日·美국민 공동대피작전"(연합뉴스)
	5.9		日관방 "한국 새 정권과도 위안부 합의 이행할 것"(연합뉴스)

			日아베 “한국 새 대통령과 北위협에 협력해 대처할 것”(연합뉴스)
			日외무상, 韓 새정부에 ‘대북압력 강화하라’ 요구(연합뉴스)
5.11	文대통령, 日아베에 “국민 대다수 위안부합의 정서상 수용못해”(연합뉴스)		
5.12			日, 조기 한일정상회담 추진...“7월 ‘독일G20’ 기간 별도회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5.5		中, 美하원 초강력 대북제재법 처리에 “긴장 고조 행위 안 돼”(연합뉴스)
	5.7		“중국, 대북압박 강화 대가로 美 태평양사령관 경질 요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5.11	日호위함 2척, 남중국해서 美구축함과 공동훈련…北中 경계(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5.5		러 폭격기 또 美알래스카 근접비행…러 전투기도 3년만 첫 출현(연합뉴스)
	5.11		“러, 미국 내 ‘러시아 스캔들’ 연루 주미 대사 교체 예정”(연합뉴스)
		美 국무부 “우크라 사태 관련 대러 제재 계속 유지”(연합뉴스)	
	5.12	트럼프 “미국 분열에 러시아 뒤에서 웃고 있을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5.7	中선박 4척, 日과 분쟁 센카쿠열도주변 접속수역 향해…9일 연속(연합뉴스)	
		中日 2년 만에 ‘재무 대화’ 개최…“금융 분야 협력 확인”(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7. 5. 8.

##### ■ ‘한반도 상황 대처’ 아태 미군전력 증강에 9조원 투입(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대 안보 관심사인 한반도 상황 대처 등을 위해 전력증강에 9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임.
-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 80억 달러(9조 840억 원)를 투입, 군 기지 등 인프라 개선, 미군 참가 군사훈련 확대, 항공 및 해군 전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런 구상을 승인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프로그램은 애초 지난 1월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아태 지역 미군 전력 강화를 위해 제시한 75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태평양 안전 구상’(APSI)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물론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함.

2017. 5. 9.

##### ■ 트럼프정부 “한국 새 대통령과 건설적이고 깊은 협력 지속 고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대통령과 우리(한미 양국)의 긴밀하고 건설적이며 깊은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길 고대한다”고 밝힘.
-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5·9 대선’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라 치러진) 이번 대선 과정 내내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책무를 잘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언급함.
- 애덤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 파트너로 계속 남을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방위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함.

2017. 5. 10.

##### ■ 美당국자 “文 당선, 한미동맹 변동성 더하지만 큰 변화 없을 것”(연합뉴스)

- 미국 정부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 탄생과 관련해 “대북 화해 접근법을 선호하는 새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 변동성을 더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 관계에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함.
-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 당선인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힘.
- 그는 “문 당선인은 압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취임하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봄.

2017. 5. 11.

■ **한미 정상, 조기 정상회담 추진…트럼프 “文대통령 공식초청”(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힘.
-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한다”며 “오시면 해외 정상으로서의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 우리 두 사람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같이 축하하자”고 말함.
- 문 대통령은 “해외 정상 중 첫 축하 전화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게 되어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와 앞으로 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함.

나. 한·중 관계

2017. 5. 9.

■ **중국 외교부, 한국 새 정부에 “사드 입장 변함 없다”(연합뉴스)**

- 한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진행중인 9일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힘.
- 경궡(耿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대선 투표가 진행 중인데 한국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중단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되고 변함없다”고 밝힘.
-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일에도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의 가동 준비가

갖춰진 상태라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단호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2017. 5. 10.

■ **중외교부 “韓 새정부와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한관계 기대”(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와 함께 한중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경왕(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한국 새 정부와 한중관계를 개선하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항상 고도로 중시하며 중한관계가 어렵게 얻은 성과를 함께 유지하길 원한다”고 강조함.
- 경 대변인은 이어 “양국이 상호 정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며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며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한중관계 개선을 원하는 중국 측 입장을 전함.

2017. 5. 11.

■ **文대통령, 시주석과 첫 통화…“사드·북핵 특사단 中 파견”(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함.
- 시진핑 주석이 먼저 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를 걸어왔으며, 통화는 정오부터 40여 분간 이뤄짐.
-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전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다. 한·일 관계

2017. 5. 6.

■ **日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日·미국인 공동대피작전”(연합뉴스)**

- 최근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해 온 일본 정부가 주한미군과의 공동작전이라는 전제 아래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뿐 아니라 미국인 대피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요미우리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과 미국인 대피를 위해 미·일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함.
- 신문은 한국의 민간공항이 폐쇄될 경우 주한미군이 부산까지 미·일 양국 민간인을 육로로 수송하고 해상자위대 수송함 등으로 부산에서 후쿠오카(福岡) 등 서일본 지역까지 대피시키는 방안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도함.

2017. 5. 9.

■ **日관방 “한국 새 정권과도 위안부 합의 이행할 것”(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한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새 정권과도 한일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진전시켜 갈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로, 한국 대통령 선거의 행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스가 장관은 또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한일간 약속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합의”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측에 대해 끈질기게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함.

■ **日아베 “한국 새 대통령과 北위협에 협력해 대처할 것”(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새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간 안전보장면에서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함.
-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능한 빠른 단계에서 시간을 조정해 (새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강조함.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한일 협력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함.

2017. 5. 11.

■ **日외무상, 韓 새정부에 ‘대북압력 강화하라’ 요구(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일 합의를 준수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등 갖가지 주문과 훈수를 쏟아내고 있음.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11일 국회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에 대해 한일, 한미일이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가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진중한 의사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文대통령, 디아베에 “국민 대다수 위안부합의 정서상 수용못해”(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음.
-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아베 총리에게 “양국이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장애가 되지 않게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진지하게 다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피력했음.

2017. 5. 12.

■ **日, 조기 한일정상회담 추진...“7월 ‘독일G20’ 기간 별도회담”(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기에 실시하기로 하고 한국측과 시점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NHK가 11일 전함.
- 이는 전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통화하고 조기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임.
- NHK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자국에서 개최하려던 연기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능한 일찍 열고 이 기회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별도 회담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7. 5. 5.

- **中, 美하원 초강력 대북제재법 처리에 “긴장 고조 행위 안 돼”(연합뉴스)**

- 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반발함.
- 경샹(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미국 하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법 처리에 대해 평론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고, 또 고도로 긴장돼 있다”며 “유관 각국은 이런 시기에 자극적 조치를 하지 말고 자제를 유지해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힘.
- 경 대변인은 “중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며 “중국은 어떤 국가든 자국의 법을 근거로 다른 국가에 대해 단독 제재를 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함.

2017. 5. 7.

- **“중국, 대북압박 강화 대가로 美 태평양사령관 경질 요구”(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대가로 대(對)중국 강경파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경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가 지난달 추이텐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를 통해 해리스 사령관의 교체를 요구했다고 보도함.
-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는 태평양사령부의 수장인 해리스 사령관은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해온 강경파임.

## 나. 미·일 관계

2017. 5. 11.

### ■ 日호위함 2척, 남중국해서 美구축함과 공동훈련…北中 경계(연합뉴스)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와 ‘사자나미’가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동중국해에서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2척과 공동훈련을 했음.
- 이는 이달 초 태평양에 이어 동중국해 상에서 양국이 호위함과 구축함들을 동원한 공동훈련을 함으로써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동·남중국해 진출을 강화하고 이들 지역을 군사 거점화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음.

## 다. 미·러 관계

2017. 5. 5.

### ■ 러 폭격기 또 美알래스카 근접비행…러 전투기도 3년만 첫 출현(연합뉴스)

- 러시아의 전략폭격기들이 3일(현지시간) 또다시 미국 알래스카 인근 상공으로 근접 비행했다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밝힘.
-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투폴레프(Tu)-95MS 베어’ 2대와 함께 러시아 최신티 전투기 ‘수호이(Su)-35S 플랭커’ 2대도 출현함.
- 미국은 즉각 F-22 전투기 2대를 대응 출격시켰으며, 이에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기수를 돌린 것으로 알려짐.

2017. 5. 11.

### ■ “러, 미국 내 ‘러시아 스캔들’ 연루 주미 대사 교체 예정”(연합뉴스)

-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캠프 진영과 러시아 간 내통 의혹에 연루된 자국 주미 대사를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타스 통신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가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대사를 대신할 야나톨리 안토노프 외무차관에 대한 인준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함.

- 하원과 상원 소관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안토노프 대사 지명자의 인준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안토노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예정된 7월 독일 함부르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는 보도함.

#### ■ 美 국무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 제재 계속 유지”(연합뉴스)

-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아직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10일(현지시간) 밝힘.
- 미 국무부는 이날 렉스 텔러슨 국무장관과 워싱턴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 회담 뒤 내놓은 보도문에서 “대러 제재는 러시아가 제재를 초래한 행동들을 되돌리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함.
-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되돌려주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러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2017. 5. 12.

#### ■ 트럼프 “미국 분열에 러시아 뒤에서 웃고 있을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이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이를 러시아가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의 대선 패배 핑계 속에 미국이 스스로 분열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러시아는 틀림없이 뒤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고 썼음.
- 러시아 스캔들과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전격 해임에 따른 후폭풍과 혼란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듯한 발언임.

### 라. 중·일 관계

2017. 5. 7.

#### ■ 中선박 4척, 日과 분쟁 센카쿠열도주변 접속수역 향해...9일 연속(연합뉴스)

-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7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을 항해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중국측 선박이 항해한 곳은 일본측이 주장하는 자국 영해 바깥쪽 접속수역(영토에서 22~44km 해상)임.
- 일본측은 해상보안청 선박을 보내 중국측 선박에 대해 일본측 영해로 접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이곳이 자국 영해라고 반박함.

#### ■ 中日 2년 만에 '재무 대화' 개최...“금융 분야 협력 확인”(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재정당국 간 정책운용을 협의하는 '재무 대화'를 2년 만에 개최하고 경제·금융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요코하마(横浜)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샹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 대화를 개최함.
- 양국은 상호 관심이 있는 중요 주제에 대해 향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시 외화 부족에 대비한 통화교환협정 등 구체적 정책에 대해선 특별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마. 중·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바. 일·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5.5	北 해외노동자 수만명·수억달러 외화벌이…美제재에 타격받나(연합뉴스)
	5.8	北 억류 미국인, 단둥행 열차 타려다 평양역서 체포(미국의소리)
	5.9	백악관 “北, 美 국민 억류 우려…석방 추진”(연합뉴스)
		북미, 오슬로서 6개월만에 ‘트랙 1.5 대화’…협상모색? 탐색전?(연합뉴스)
5.10	미 하원, 북한 정보유입촉진법 발의(미국의소리)	
	미국무부 “북한여행 강력 경고”…잇단 자국민 억류에 수위올려(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5.10	北 “유엔 특별보고관 인정 않지만 국제인권협력 중시”(연합뉴스)
		유니세프 “북 영양실조 대물림 심각”(자유아시아방송)
	5.11	北, 억류 미국인들 ‘범죄자’로 지칭…“무자비하게 징벌”(연합뉴스)
		소식통 “北주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사실 몰라”(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5.8	KAL납북자 가족 "인권위가 구제 거부…국제등급 조정해야"(연합뉴스)
대북지원	5.9	캐나다, 유엔 대북 인도적 사업에 150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5.11	프랑스 정부, 유엔 대북사업 17년 만에 지원(미국의 소리)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5. 5.

#### ■ 北해외노동자 수만명·수억달러 외화벌이…美제재에 타격받나(연합뉴스)

-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함.
-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목적임.
-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찌감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그동안 실효성은 별로 없었음.

2017. 5. 8.

#### ■ 北 억류 미국인, 단둥행 열차 타려다 평양역서 체포(미국의소리)

- 북한이 지난 6일 억류한 평양과학기술대학 봉사자인 미국 국적자 김학송 씨가 중국 단둥(丹東)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열차를 타려다 평양역에서 체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김 씨의 부인인 김미옥 씨는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열차) 예정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남편이 북한에서 억류됐다는 사실을 다음날인 7일야 평양과기대 측한테서 듣게 됐다"고 전함.

2017. 5. 9.

#### ■ 백악관 "北, 美 국민 억류 우려…석방 추진"(연합뉴스)

-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 국적자인 김학송 씨를 억류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함.
- 슌 스콧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명히 이는 우려되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잘 알고 있고,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과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억류된 (미국) 민간인들의 석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 앞서 평양과학기술대학 봉사자인 김 씨는 지난 6일 중국 단둥(丹東)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열차를 타려다 평양역에서 체포돼 억류된 것으로 전해짐.

■ **북미, 오슬로서 6개월만에 ‘트랙 1.5 대화’…협상모색? 탐색전?(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은 8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외곽의 한 호텔에서 북한 당국자와 미국의 북한 관련 민간전문가가 만나는 형식인 ‘트랙 1.5 대화’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양측은 작년 11월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대화했으며 오는 9일까지 이틀간 대화를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양측은 만남 장소와 시간은 물론 이번 대화에 참석하는 대표자들의 신상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 접촉을 진행함.
- 북한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수잔느 디매시오 ‘뉴아메리카 싱크탱크’의 국장 겸 선임연구원을 단장으로 그동안 북한과의 트랙 1.5 대화에 참가해왔던 전직 국무부 출신 북한 관련 민간전문가들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2017. 5. 10.

■ **미 하원, 북한 정보유입촉진법 발의(미국의소리)**

-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최근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을(H.R.2397) 발의함.
-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2017 북한법안’(DPRK Act of 2017)으로도 불림.
-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대북 라디오방송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새 법안은 이를 보다 세분화해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함.
- 또 북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북한에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함.
- 대북 정보 유입의 수단도 다변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영상재생기, 손전화, 무선인터넷, 웹사이트, 무선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함.

■ **미국무부 “북한여행 강력 경고”…잇단 자국민 억류에 수위올려(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경보를 재연장하면서 더 강력한 어조로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함.
- 지난 2달 사이에 잇따라 발생한 미국인 국적자의 북한 억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됨.

-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부는 미국 국민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5. 10.

### ■北 “유엔 특별보고관 인정 않지만 국제인권협력 중시”(연합뉴스)

- 북한이 처음으로 방북을 허용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지난 여드레간 활동을 결산하면서 국제인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탈북자들의 거짓증언과 날조자료에 기초하여 조작한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을 전면 배격하며 결의에 따라 나온 조선(북한) 인권상황 관련 특별보고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면서도 “우리 측은 국제인권 분야에서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중시한다”고 전함.
- 이어 “장애자 권리에 관한 협약을 포함하여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 협약들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입장으로부터 이번에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장애자 권리담당 특별보고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하고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강조함.

### ■유니세프 “북 영양실조 대물림 심각”(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국제아동기금(UNICEF)이 10일 공개한 ‘2017 북한 어린이와 여성 상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에 비해 어린이와 임산부를 비롯한 여성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뚜렷함.
- 보고서를 보면 아이를 낳다 목숨을 잃는 여성의 수가 1990년 10만 명 당 97명에서 2014년 10만 명 당 66명으로 31% 줄었지만 도시에 사는 여성에 비해 농촌 지역 여성의 출산시 사망률이 2배나 높음.
- 국제아동기금은 농촌 지역 여성의 출산시 사망률이 도시 지역보다 2배나 높은 이유를 부실한 교통수단과 부족한 의약품, 그리고 의료 수준으로 설명하였으며, 북한에서의 가난과 영양부족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2017. 5. 11.

■ **北, 억류 미국인들 ‘범죄자’로 지칭…“무자비하게 징벌”(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억류된 미국 국적자들이 반(反)북 적대행위를 한 ‘범죄자’라며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일부 보수언론들은 우리가 미국인들을 ‘인질’로 ‘납치’하여 ‘협상홍정물’로, ‘인간방패’로 써먹으려 한다는 황당한 꾀변들을 여론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대변인은 “최근에 억류된 미국인들은 공화국(북한)을 반대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해당 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범죄자들을 법대로 다스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함.

■ **소식통 “北주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사실 몰라”(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개시 이틀째를 맞고 있지만,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문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주장함.
- 탈북민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평안북도 신의주 주민들은 현재 남한의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함.
- 김 대표는 “최근 전력사정이 풀리면서 북한 당국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 7개의 대북 라디오 주파수에 대한 전과교란(재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5. 8.

■ **KAL납북자 가족 “인권위가 구제 거부…국제등급 조정해야”(연합뉴스)**

- 48년 전 납북된 대한항공(KAL) YS-11기 탑승자의 가족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의 국제 등급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

- 1969년 KAL기 납치 피해자인 황원씨 아들 인철씨는 8일 서울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아테 루돌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의장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힘.
- 황씨는 이메일에서 “정부는 인권침해로부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비롯한 저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런 사실을 기술했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였으나 인권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힘.
- 황씨는 이메일에서 “정부는 인권침해로부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비롯한 저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런 사실을 기술했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였으나 인권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힘.

## 5. 대북지원

2017. 5. 9.

### ■ 캐나다, 유엔 대북 인도적 사업에 150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 캐나다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유엔의 인도적 사업에 150만 달러(약 17억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올해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각각 112만 달러, 37만 달러를 지원함.
- 캐나다 외교부의 브리트니 플레처 대변인도 전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유니세프, WFP에 각각 3, 4월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힘.

2017. 5. 11.

### ■ 프랑스 정부, 유엔 대북사업 17년 만에 지원(미국의 소리)

- 프랑스가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의 세계식량계획 WFP의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를 위한 식량 지원 사업에 10만 달러를 제공함.
-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이 기구의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영양 지원과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업에 이 자금을 지원함.
- 프랑스 정부는 지난 17년 동안 주로 자국 민간 구호단체를 통해 북한을 지원해옴.